

“무법칙적 일원론과 심성인과”를 읽고

이 효 범 (공주대)

하중호 교수는 이 논문에서 데이빗슨의 무법칙적 일원론이, 무법칙적 일원론의 기본입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심성인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논변한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제기된 김재권의 수반적 인과관계에 의한 환원주의적 유물론이 심리철학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심성 내용에 관한 외재주의의 어려운 비판에 봉착한다고 지적한다.

여기서 비평자는 하교수가 제시한 무법칙적 일원론이 심성인과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이유들을 다시 한번 고찰해보고자 한다. 비평자도 근본적으로 데이빗슨의 이론에 동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데이빗슨 이론을 비판하는 그 이유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응답도 가능하지 않을까를 생각해 본 것이다. 이런 비평자의 생각은 데이빗슨 자신의 견해도 아니고 또 그가 이런 생각을 받아들일지 않을지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것이다.

첫째로, 하교수는 데이빗슨을 옹호하려는 르포어와 로우어의 답변은 적절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 논변은 이렇다.

- | | |
|---|------------------------------------|
| c : 내가 물을 마셔야겠다고
생각하는 사건 | e : 내가 물이 든 컵을 잡기
위하여 손을 내뻐는 사건 |
| F : 내가 물을 마셔야겠다고
생각함(심적속성) | G : 내가 물이 든 컵을 잡기
위하여 손을 내뻐음 |
| F* : 내가 물을 마셔야겠다고 생각할 때 발생하는
두뇌의 신경생리학적 속성(물리적 속성) | |

데이빗슨을 비판함: 사건 c가 F를 갖지 않더라도 F*를 가지면 여전히 e는 발생하게 되고, 데이빗슨의 이론 체계 안에서는 Fc와 F*c가 동일하므로, 결국

심적 사건 F_c 는 인과적으로 효력이 없지 않은가?(가)

르-로의 답변: 사건 c 가 심적 속성 F 를 가지되 물리적 속성 F^* 는 가지지 않더라도 사건 e 가 발생하는 것이 무법칙적 일원론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가?(=가) 허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c 가 F^* 를 갖지 않더라도 이와 '매우 유사한' 물리적 사건 F^{**} 를 가질 것이기 때문에.

하교수의 비판: F^* 와 F^{**} 가 매우 유사하고 할 때 어느 정도 유사한 상태인지 분명치 않다.

비평자의 답변: c 가 F^* 를 가짐이 없이 F^{**} 를 가짐만으로도 e 를 발생시킬 정도의 유사성이다.

하교수의 답변: 만일 F 가 발생할 때 항상 F^* 만이 발생하고 다른 신경생리학적 속성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비평자의 답변: F 가 발생할 때 항상 F^* 만이 발생한다는 생각하고, F 가 발생할 때 F^* 와 유사한 다른 신경생리학적 속성들이 발생한다는 생각 사이에 어느 생각이 더 경험적이고 또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가?

둘째로 하교수는 르-로가 구별하는 두가지 인과적 관련성의 개념만으로는 F_c 와 G_e 의 인과문제를 답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 논변은 이렇다.

르-로의 주장: 인과적 관련성은 두가지 개념으로 구별된다. 제2개념으로서의 인과적 관련성의 경우, 사건 c 가 속성 F 를 갖는 것이 e 가 G 를 갖는 것에 인과적으로 관련이 있기 위해서는, (i) c 는 e 의 원인이다 (ii) c 는 F 를 가지며 e 는 G 를 갖는다 (iii) c 가 F 를 갖지 않는다면, c 는 G 를 갖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iv) c 가 F 를 갖는 것과 e 가 G 를 갖는 것은 물리적으로 그리고 형이상학적으로 독립되어 있다라는 네가지 조건을 가져야 한다.

하교수의 비판: 정의항 (i)에서 c 가 e 의 원인이 된다고 말하면서, F_c 는 F_e 의 원인이 된다고 하지 않고, 인과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비평자의 답변: c 와 e 의 관계는 사건적 차원, 거시적 차원인 반면, F_c 와 G_e 의 관계는 속성적 차원, 미시적 차원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구별해서 전자는 인과적 개념을 후자는 인과적 관련성의 개념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교수의 비판: 심성인과의 문제가 F_c 와 G_e 의 인과성을 묻는 문제이지, 그들 간의 인과적 관련성 여부를 묻는 것은 아니다.

비평자의 답변: 심성인과의 문제는 엄밀하게는 Fc와 Ge의 인과성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 c와 e의 인과성을 묻는 문제이다.

세째로, 하교수는 시겔과 소비를 인용하여, 르-로의 인과적 관련성에 관한 제2 개념에 대한 정의가 심물관계는 둘째치고, 물물관계에서도 성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시겔과 소비의 비판: c가 F인 상태를 석탄이 빨갛게 된 상태로 보고, e가 G인 상태를 종이 가 타는 상태로 보자. 그러면 정의항의 (i)(ii)(iv) 뿐만 아니라 (iii)도 만족된다. 그러나 석탄의 색깔이 종이의 연소에 대해서 인과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평자의 답변: 이 경우 엄밀하게는, c는 석탄이 빨갛게 된 사건이고, e는 종이 가 타는 사건이고, F는 석탄이 빨갛게 됨이고, G는 종이 가 타이다. 그런데 조건 (iii)은 c가 F를 갖지 않는다면, e는 G를 갖지 않을 것이다 이기 때문에, 이 경우가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는 확실치 않다. 왜냐하면 석탄이 빨갛게 된 사건이 석탄이 빨갛게 됨이라는 속성을 갖지 않을지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네째로, 하교수는 김재권을 인용하여, 인과적 관련성의 두 개념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그 중에서 F와 F*가 모두 G에 대해서 인과적으로 관련되어 있을 경우, ‘c가 발생하고 F*를 가졌고 e가 발생하고 G를 가졌다면, c가 F를 갖지 않았더라도 e가 G를 가졌을 것인가?’하는 물음이 제기된다고 말한다. 이 물음에 ‘아니다’라고 답할 경우, 이것은 e가 G를 갖는다는 물리적인 상태를 산출하기 위하여 물리적인 속성에 덧붙여서 심적 속성도 가져야 함을 뜻하고, 그러면 물리계의 폐쇄성의 원칙을 어기는 결과가 나온다. 그렇다고 ‘예’라고 답할 경우, 소기가 F를 갖는 것에 대하여 인과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이나 하는 물음이 제기된다고 비판한다.

비평자의 답변: 비평자는 우리가 ‘심적 속성’의 정체와 ‘인과적 관련됨’이라는 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규명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비판을 극복할 수 있을 없을지를 생각해 본다. 하나의 사건 c는 F와 F* 이외에 수많은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속성들을 크게 심적 속성과 물리적 속성으로 나눌 수 있지만, 얼마든지 다르게 나눌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중

다른 하나는 수동적 속성(열성속성)과 능동적 속성(우성속성)으로 구분하는 방법이다. 능동적 속성은 속성들 중에 중심적 속성으로 걸로 드러나고,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결정한다. 또 이 속성은 주체적으로 결과 c사건을 발생시키는 속성이다. 이에 반해 수동적 속성은 비중심적 속성으로 감추어진 속성이고, 사건의 성격을 결정짓지 못한다. 그러므로 소극적 속성은 결과 e사건을 발생시키는데 어떤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

인과적 역할에 아무 힘이 없다고 해서 존재한다고 말할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우선 다른 사건과 관계해서 어떤 소극적인 역할을 한다. 카멜레온이 갖고 있는 보호색 자체가 스스로 그 동물에게 어떤 적극적 인과적 힘을 발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다른 동물의 공격으로부터 그 동물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다른 동물의 지향적 작용에 대상으로, 수동적으로 존재했지만 카멜레온의 생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이렇게 수동적 속성은 그 사건 내부에서는 능동적으로(자발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지만, 다른 사건과 관련해서는 능동적 속성이 하지 못하는 어떤 중대한 역할을 소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 수동적 속성은 지금은 비록 e사건에게는 인과적으로 영향을 주는 아무런 힘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능동적 속성이 손상을 입거나 혹은 e사건이외의 다른 사건과 관계를 맺어 다른 속성이 필요해질 때, 그것을 위한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수동적 속성은 비축된 속성이거나 아니면 실현될 기회를 노리는 가능성의 속성이기 때문에 존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비평자는 '인과적으로 관련'된다는 것이 결코 간단하거나 단순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 사건과 다른 한 사건이 인과관계를 맺을 때, 그 사건들을 구성하는 속성들의 총체가 관련되지, 그 중 하나의 속성만이 관련되지 않는 것이다. 또 한 사건을 구성하는 속성들도 그 자체 속에서 부단한 관계를 맺는다. 그러므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또 변화가 있다는 것은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리세계의 변화의 원인을 물리세계를 넘는 마음이나 생기원리나 엔테레키나 정신적 에너지나 생명의 약동력이나 혹은 신과 같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신비적인 것에 두지 않고, 물리적인 것으로만 설명하려는 물리학자들은 물리계가 폐쇄되었다고 가정한다. 그런 폐쇄된 물리계에 앞에서 말한 '가능성'은 포함될까? 만일 포함된다면 그 가능성의 일종으로 '심적 속성'이 들어올 수는 없을까? 그리고 만일 가능성이 폐쇄된 물리세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런 가능성을 배제한 물리학이

과연 생명계를 포함한 모든 물리세계를 온전히 설명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무법칙적 일원론이 심성 인과의 문제를 풀 수 없다는 하교수의 논문을 비판적으로 살펴보았다. 그의 논변은 매우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아직까지 심신문제에 관한 만족할만한 이론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 실험적 고찰로서, 잠시 하교수의 논변에서 스치는 생각이 있어 여기에서 감히 개진해본 것이다. 생각할 기회를 준 하교수의 좋은 논문에 감사드린다.